



3면

"장애인 옴부즈만제도 조성... 차별 문제 해결"

# 전주매일

www.jjmaeil.com

2024년 10월 8일 화요일 (음 9월 6일) 제3598호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투과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 '미래문화축제 팔복', 11~13일 팔복예술공장 일원서 문화도시 전주의 새 시작 알린다

전통·첨단기술 융합  
전주예술난장과 연계

전주시와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최락기)은 오는 11~13일 전주 팔복예술공장 일원서 '미래문화축제 팔복'을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가장 한국적인 미래문화도시'를 비전으로, 가장 한국적인 전주의 풍부한 문화자원과 뉴미디어·첨단기술을 융합해 새로운 매력을 창조하는 도시를 목표로 대한민국 문화도시 전주 예비시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 연말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최종 지정되면 오는 2025년부터 3개년 동안 최대 2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번 축제는 시가 대한민국 문화도시 본도시 지정목표로 예비사업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한층 진화된 공연과 실험적 예술 등을 선보임으로써 문화도시 전주의 지향점을 제시하는 자리로 꾸며질 예정이다.

먼저 축제 첫날 오후 7시, 팔복예술공장 이팝나무 광장에서 열리는 개막식에서는 '타악연희원 아귀'의 탄소복 및 미디어복을 활용한 ICT 타악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AI 기술을 활용한 작곡 공모전인 '다이크 투 퓨전'의 당선작인 레드소울퍼버와 국악인 윤세연의 공연이 이어진다.

또한 이번 축제에서는 국내 최초의 VR 아티스트인 염동균 작가의 XR 퍼포먼스도 펼쳐진다. 염 작가는 이 자리에서 VR 기기를 활용한 라이브 드로잉을 통해 예술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예정으로, 전통과 역사를 첨단기술과 결합한 미래문화도시 전주의 비전을 잘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축제 3일 동안 다양한 상설 프로그램이 준비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팔복예술공장 이팝나무 홀에서는 몰입형 미디어아트 전시 '미래파장'을 통해 전주의 과거와 미래가 교차하는 순간을 예술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팔복예술공장 씨너마와 건축책방·그림방에서는 9명의 작가가 참여한 탄소문화상품 전시 '탄소



7일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미래문화축제 팔복'과 관련된 브리핑이 열린 가운데, 최락기 전주문화재단 대표이사(사진 왼쪽)이 행사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미래문화축제 팔복'은 오는 11~13일 전주 팔복예술공장 일원에서 열린다.

정거장'과 5팀의 시민참여 문화예술모임 '만시OK'의 결과를 전시가 각각 진행된다.

팔복예술공장 야외 메인거리에서는 △탄소 체험프로그램 △VR 버스 △푸드존 △셔틀버스 및 무궤도 기차 등 방문객을 위한 다양한 편의시설이 마련된다.

이외에도 오는 11일 오후 5시 팔복예술공장 카페에서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나전칠기 아티스트인 김영준 작가의 특별강연이 펼쳐지고, 12일 오후 4시 팔복예술공장 다목적실에서는 예술가의 창업·창직을 지원하는 '드림하이' 멘토링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동시에 시는 미래문화축제 팔복이 열리는 기간 팔복동 제1산업단지 일원에서 거리예술축제인 '전주예술난장'도 함께 개최한다.

전주의 대표 거리공연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예술난장은 올해 '다시, 팔복! 전주예술난장'을 주제로, 주제공연과 초청공연, 기획공연 등 총

52개 팀의 73회의 공연이 예정돼 있다.

특히 주제공연의 경우 동춘서커스와 마칭밴드, 공중 퍼포먼스 등 5개의 공연단으로 구성된 팔복동 제1산업단지의 과거부터 현재를 돌아볼 수 있는 공연을 선보인다. 또 전국 공모를 통해 선정된 초청공연팀과 기획공연단은 다채로운 퍼포먼스와 행위예술 등의 공연을 통해 관객들과 호흡을 맞추게 된다.

노은영 전주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팔복동에서 처음 열리는 '미래문화축제 팔복'을 통해 시민과 관광객들이 새로운 문화적 경험을 누리길 기대한다"면서 "이번 축제가 전주가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도약하는 출발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익중 기자

10월 9일 한글날에 따라  
신문은 10일 발행합니다.

## 취약계층 응급환자 대상 최대 15만원 이송비 지원

도, 의료 접근성 향상·경제적 부담 줄이기 위해  
고령자 대상 포함, 이송구간 제한없는 지원 확대

전북특별자치도는 응급의료 취약지역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취약계층 응급환자 이송비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응급상황에서 사설 구급차 이용 시 최대 15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응급의료 취약지역으로 지정된 정읍, 남원,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지역의 9개 시·군 주민들은 이번 사업의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택에서 119구급차를 이용할 때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나, 병원 간 이송 시 사설 구급차를 이용할 경우 발생하는 기본요금과 추가 요금이 취약계층에 상당한 부담이 됐다.

이번 사업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의료 취약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지원 대상은 소아·청소년(0~18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그리고 이번에 추가된 '고령자(65세 이상)'로, 이들은 응급의료 취약지에서 타 지역 의료기관으로 이송되는 경우 거리에 상관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이송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주민등록상 거주지 보건소에서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이 이루어진다.

전북특별자치도 보건당국은 "이번 사업 확대는 응급의료 취약지역 주민들에게 신속한 응급처치를 제공하고, 의료비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더 나은 응급의료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송비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각 시군 보건소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으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신청일 기준 익일 15일 이내에 지원금이 지급된다.

/이만호 기자

## '한국 레슬링계 전설' 김익중, 체육 소장품 기증 동참

"전북 체육 역사기념관 건립 보탬 되달라" ... 메달 등 전북체육회에 전달

한국 레슬링계의 전설인 김익중 원로가 체육 소장품 기증에 동참했다.

7일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회장 정강선)에 따르면 김익중 체육 원로가 전북 체육 역사 기념관 건립에 보탬이 되 달라며 체육 소장품을 도 체육회에 전달했다.

특히 이날 유인탁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자 전 진천선수촌 선수단장 등 많은 체육인들도 기증식에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김익중 체육 영웅은 이날 1964년 제1회 청동메달패전 우승 메달을 비롯한 각종 대회 메달과 기념주화, 올림픽 단복, 여행가방, 기념품, 사진 등 약 315점을 전달했고, 보관하



김익중 체육 원로(가운데)가 값진 체육 소장품을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에 전달하며 환하게 웃고 있다.

고 있는 소장품을 추가로 기증하기로 약속했다.

정강선 회장은 흔쾌히 체육 소장품을 전달해 준 김 영웅에게 깊은 감사를 전하며 기증증서를 전달했다.

진안 출생인 김익중 원로는 한국 레슬링계에서 많은 업적을 쌓아온 인물이다.

선수 시절에는 전국체전 5회 연속 금메달을 비롯해 도쿄올림픽(1964)과 멕시코올림픽(1968)에 출전했다.

선수 생활을 끝낸 뒤 지도자로서도 왕성하게 활동했는데 태릉선수촌 코치, 대한주택공사 감독, 몬트리올올림픽 감독 등을 역임했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를 비롯해 프로·실업 선수, 원로 체육인, 지도자(감독), 도민 등을 대상으로 체육 소장품 기증 릴레이를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뉴시스

2024-2025  
문화관광축제  
KOREAN CULTURE & TOURISM FESTIVAL

세계의 맛 순창에 담다

# 제19회 순창장류축제

2024. 10. 11금 ~ 10. 13일 3일간

순창전통고추장민속마을, 순창발효테마파크 일원

주최·주관 | 순창군 순창장류축제추진위원회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전북특별자치도 한국관광공사